

월간

충

현

5

발행인 김 창 인
편집인 위 영 환
주 간 신 성 중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현 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 · 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5년 5월 11일 발행
통권 제17호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 장 1 - 4 절)

효자신자가 되자

—가정의 달을 맞아—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주일과 부모님주일이 다 함께 5월에 있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공경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5월의 보다 깊은 뜻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효자(또는 효녀)신자가 되는 데 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롬 5:8) 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신자가 되는 것은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겠다. 당회장 목사님의 모든 설교도 “효자신자가 되자”는 이 한 말씀에 요약될 수 있다고 본다. 효자신자가 되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일 뿐 아니라 또 축복받는 비결이기도 하다.

그러면 효자신자가 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효자신자가 된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는 계명을 뜻한다. 이는 십계명의 요약이며 기독교의 근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효자신자가 된다는 말은 먼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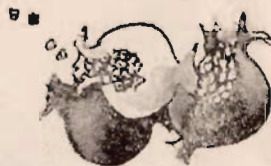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자신자가 되는 길인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먼저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그의 말씀에 귀기울이며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종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횡적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 말하지 않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고 하신 것이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고 하신 것이다.

혈육의 부모님께 대한 참된 효도도 형제 간의 우애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꼭 같은 이유이다.

사도 요한은 “보는바 그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요일 4:20)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에게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75년도 벌써 3분의 1을 보냈다. 나머지 3분의 2는 효자신자로서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공경을 아래로는 주를 믿는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육신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효(孝)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간혹 이를 구별하는 나머지 후자에 대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되기에 앞서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간>



차 례

〈설교〉 엘리와 가정과 한나의 가정/정기성 목사...	3
〈신앙인물 소개〉 박영순 권사.....	10
〈해의설교〉 홍종만 목사.....	11
□ 특 ◇Ⅰ :가정이란?	4
◇Ⅱ :우리교회의 노인들.....	6
□ 집 ◇Ⅲ :유아와 가정.....	8
〈컬럼〉 주역(主役)과 단역(端役)/정은표	12
〈만평〉 오 응 기	12
〈구역공과〉 6월공과	13
〈교회뉴스〉	14

5월의 행사

4일/정기제직회
4일/어린이주일
11일/부모님주일
11일/남전도회 월례회
13일/교육연구위원회 월례회
18일/교육위원회 월례회
18일/여전도회 월례회
25일/구역권찰회 월례회
25일/주일학교 교사 월례회
27일/정기당회
◇ 김창인 목사 방송설교/기독교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

성경 / 삼상 3 장 10 - 14 절

-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위탁하신 피교육자임을 알고,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는 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성경에 대조적인 두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입니다. 자녀 교육면에 있어서 엘리의 가정은 실패했고 한나의 가정은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성공,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니까?

1.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엘리의 가정은 망했다 (2:29)

어느 부모든지 자기 자식을 중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것은 엘리와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고 하나님이 이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까지 묵인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법 안에 있게 해야 합니다. 육적인 정에 붙들려 눈감아 주는 식의 교육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는 교회 생활을 잘하겠거니 하고 방관하여도 안됩니다. 이것은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본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3:13).

엘리는 저주를 자청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육정에 매여 자식들이 죄를 범하여도 대수롭지 않은 감기 정도로 보아 넘겼습니다. 이 병은 악화되어 종교생활은 의식뿐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고질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와 반대였습니다. 그는 귀하게 얻은 한 아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키웠습니다(2:11).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절대자이심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2:4-8). 그는 자기가 사무엘을 낳기는 했지만 자기의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집에서 키울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되 육정으로만 아니고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참으로 믿는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야 합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위탁해 주신 피교육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집에 책임있는 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자식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상급입니다.

2. 피로움을 하나님께 통한 한나는 성공했다

한나는 어린애를 낳지 못하여 수치스럽고 억울함을 당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피로웠습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자기의 피로움을 갚기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피로운 심정을 통하였었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피로움을 이기었고 믿음의 확증을 얻었으며,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스스로 해결 못할 피로움을 안고 삽니다. 그 중에도 자식이 없는 것보다 자식은 있는데 자식의 밝은 날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처럼 명분은 지도자이며 돈도 명예도 권세도 있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원수노릇하고 형제도 동족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망한 자식을 가졌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때가 늦기 전에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 가운데 자녀를 키워야 하겠습니다.

누구도 이 악한 세대에서 귀여운 자녀들을 마음놓고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열심히 부탁하여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신앙 인물치고 그 배후에 훌륭한 기도자가 없었던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도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충현의 성도들이여! 말씀과 기도는 자녀교육의 초석이고, 부모의 성공은 훌륭한 자녀입니다. 육정에 끌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녀를 키우지 말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성공입니다. 충현의 가정은 절대자 하나님을 모신 가정으로 한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본교회 부목사·교육위원장〉



〈정 기 성 목사〉

성도의 가정은 조그만 천국

- ...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족간의 애정과 가정의 행복을 되새겨 보는 달이다. 가정은 사회구...□
 □...성의 한 단위이며 기초이다. 그러기에 화목한 가정은 건전한 사회, 국가를 이루는 기본이 된다...□
 □...다. 더구나 "성도의 가정"은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뤄야 할 것이다. 이는 하...□
 □...나눔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조그만 천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성도의...□
 □...가정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

스스로를 키우는 터전

지영실 원사

하나님의 선물인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가정을 지금 생각해 봅니다. 하루의 피곤을 감싸주고 흐뭇한 침이 넘치는 이 조그마한 모임은 어떠한 것일까요?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며 서로를 아끼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다 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즉, 교회와 그들이 일할 사회에 대해 중한 역할을 하는 가정으로서의 중요성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각자가 부딪친 일들을 같이 의논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기뻐해 주는 가정이 되어서 내일을 살아가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지요. 사랑의 안식처가 되고 스스로 자신을 키우는 터전도 될 수 있겠지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주님만을 의지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를

정관호
 <대학부 3년>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떡을 달라 할 때 물을 주는 부모 없고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부모는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원하는 가장 최선의 것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을 주려고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가끔 젊은이들은 당황하고 당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젊은 자녀들은 자신이 마치 어떤 사고 물체의 응집체요 결정인 모양 매사에 있어 부모로부터 검열(?)을 받아 부모들을 검열식 부모로 인식하게 될 때 이유 없는 반항에서 이유 있는 반항으로 전환하곤 합니다.

항시 자녀들은 부모에게 끊임없이 순종하고 배우는 입장에서 서야 하겠지만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친구처럼 또는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진지한 대화를 가지길 바라면서도 부모와의 대화를 회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어쩌면 해결책 아닌 책망이나 꾸지람이 미리부터 대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들이 보기에 자녀들은 사려없고 무분별하고 신중성이 없으며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젊은 자녀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오는 보수적이고 봉건적인 입장에서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대화단절과 젊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 불행의 씨앗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정은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이며 최악의 경우 사회생활이 실패할 때 그것을 보상해 주는 최후의 보루이며 요새치인 것 같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태초 인간창조부터 시작된 가정생활은 현존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미래의 후손에도 책임을 갖고 자녀를 키우고 양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도 의견불일치가 있듯이, 가족구성원 사이 즉 부자, 부녀, 모자, 모녀...형제끼리도 의견이 충돌합니다. 그러나 의견충돌로 인하여 사람과 행복의 파괴를 야기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사실들로부터 의견불일치에서 의견통합으로 이끄는 에지를 발견하고 자녀들의 성장발전을 지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과 화평과 안락만이 있는 가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다면 다행이겠음니다만 그것은 가정형태에 있어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model)이 될 뿐이며 모든 크리스찬 가정이 이 모델을 향한 최선의 진력을 해야 할 것을 일러줍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다시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 사이 삼자 균형의 상태를 원하며 가정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잠재한 인간성을 길러줄 책임이 부모에게 있으며,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주의 명령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가정은 일종의 좁은 학교가, 사회가 되어야 하며 영육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삼은 사람이로되 그 사람이 지나친 간섭이 아닌 따뜻한 관심으로써 온 가정이 공동분모적인 신앙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대화의 부존상태에서 대화의 존재상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호 이해와 협조 아래

홍종작 집사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가 있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있어야 할 것(?)이 다 있으면 더 좋

은 가정일 것이다. 그러나 조금은 부족해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의 가정, 뜻이 달라도 가족끼리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남자는 이레야 되고 여자는 저레야 된다는 원칙이 없는 가정, 자기 고집으로 상대방을 속상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서재 같은 것은 어렵도 없을만큼 가난할지라도 책을 읽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날개가 없어 날지 못할 뿐이라는 식의 높고 높은 이상을 들어 주며 참된 현실참여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실력과 신앙을 가진 어른이 있는 가정, 이런 가정에 하나님은 복을 더 해 주실 것이다. 의심하거나 속박하지 않고 위해 주고 아껴주는 몸짓, 아마 그렇다면 가난에 불만이 있어도 불평을 못할지도 모른다.

나만을 주장하지 않는 겸손한 행동(무기력이 아님)으로 서로 사랑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정에는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 그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 것이다.

믿음과 책임 속에서만이

지 영 순

<대학부 2년>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족이라는 혈연관계의 인연을 가진다.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가끔은 잊어버리듯이, 가정의 고마움 또한 평소에도 그렇게 뼈저리게 느낄 수는 없지만 요즘같이 인간들의 삶이 다양해지고 정신이 문명사회에 시달릴 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마음과 정신을 통한 무엇인가 안정될을 느낄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이라는 본질적이고 필연적 요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해의 학창시절을 통한 종합적인 배움에서 가정에 충실한 사람은 더 큰 단위의 모임에도 충실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전개하며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나 혼자 생각과 관념은 버리고 가족상호간의 개성과 의견을 존중함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정의 관계는 어느 무엇보다도 긴밀한 관계의 추궁 받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스스로의 책임에 무관심하기 쉽다. 그러나 각자의 사소한 책임회피, 책임불이행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믿음을 해치는 일까지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혹 어느 가정에서는 지나치게 책임만을 강조하여 마치 "책임상" 물려있는 듯한, 그래서 책임완수만 하면 그것으로써 구성원의 일을 모두 한 듯한 기분을 들게 하는 가정도 있다.

가정은 하나의 조그마한 사회다. 사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어느 누구에게도, 무엇으로도 책임을 받지 않는 개개의 인격체로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무시된 사회는 올바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가정에서 믿음과 책임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상호간이 각개인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성도의 가정

윤 두 한 장로

성도의 가정이라면, 첫째, 가족적이면 물질로 부유하지는 못하여도 남에게 꾸러가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가옥도 고루거작은 못되더라도 손님 4, 5인이 와서 조용히 환담할 방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런 환경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령 삼대(三代)가 살고 있다면 할아버지로부터 손자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생활이 있어 주위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하겠습니다. 셋째, 이 성역은 즉 가정은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잘 지켜서 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어느 집 가정의 이야기인데 그 집에 어느 밤 시골에서 할아버지뻘 아저씨뻘 되는 친척과 친구가 오랫동안 찾아오셨다 합니다. 오신 분들은 몸도 피곤하고 목도 켈켈하여 우선 아무 술이나 한 병 사오라고 하시면서 담배를 태우려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 큰일났다. 평소에 단련은 되어있지만 워낙 상대가 손윗 어른들이라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안됩니다. 술도 담배도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제가 예수 믿는 줄은 아마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 안디. 너는 예수를 믿으니 그러거니와 우리들이야 안믿는데 어찌란 말이냐?" "안믿는 사람일지라도 교회당 같은데 가서야 담배나 술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야 할 수 있느냐?" "그러시다면 교회는 큰 집이요. 저의 집은 작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에 가서는 못하시는데 작은 교회에서는 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는 집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따지며 말씀드리니 할아버지도 아저씨도 손아래 손자 조카뻘 되는 자에게 그만 후회하지 않을 수 없어 근근히 하루밤을 지새우고는 그 이튿날 당장 아침에 떠나시고 말았다 합니다. 세상사람의 도덕관으로는 몰상식하고 잔인하며 그렇게 당하는 분이냐 말리는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랴 그러나 교훈과 전도상으로 피쳐 못할 일인 것입니다.

순풍에 물탄 것같은 함해, 평온한 성도의 가정도 잘못되어 있을지 모르나 세상과 싸워 이기려 하는 가정은 이상적인 가정이 되는 데에 회생을 치루어야 하겠습니다.

쉬임 없는 활동 속에 외롭지 않는 여생

- ... 잔잔한 호수처럼 말이 없다. 조용하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는 200여명에 가까운...
- ...70세 이상의 우리 교회 노인들에 대한 인상이다. 그러나 그들은 3·1운동, 8·15해방, 6·25사변, 4·19...
- ...의가와 5·16혁명 등 과거 1세기에 걸쳐 우리 민족의 갖가지 어려움과 변화를 체험하고 보아온 목격자들...
- ...이다. 그들의 신앙적 체험은 극적이며 생은 파란만장한 편편(片片)이 절절된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의...
- ...세대 중 그 누구도 감히 이들을 가난한 정복의 대열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며 우관한 사람들이라고...
- ...말할 수는 없다. 특히 젊은 세대는 우리 믿음의 선배인 이들에게 다시금 머리를 숙이고 이질적인 세대로...
- ...규정하여 남은 여생을 외로이 홀로 견게 하지 말자. 도리어 양팔을 부축하여 느보(nebo)산에 함께 올...
- ...라 우리가 정복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 축복하시게 하자. 이런 뜻에서 이...
- ...번 호에는 간략하게나마 우리교회 노인들의 현황과 이들을 위한 교회의 프로그램 및 몇분의 단편적인 신...
- ...양간증을 실어 보았다. 이를 계기로 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문제를 교회가 해결하는 실마리...
- ...가 되었으면 한다.

□ 현 황 □

1975년 4월 22일 현재 우리교회의 총 1,903 세대가운데 15세 이상의 교인이 모두 4,305명인데 대하여 70세 이상의 노인은 모두 193명으로 전체 교인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세례자는 모두 153명이다. 우리가 바라기는 모두가 세례자이었으면 하지 만 이는 늦게 믿기 시작한 분들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습을 받으신 분들도 더러 있다. 또한 1973년 3월 25일 우리교회가 목사·장로·안수집사·권사의 정년을 70세로 제정한 이후 그들에게는 「공로장로」 「명예권사」 등의 새로운 제적 이름이 붙여졌다.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로장로 2명, 공로전도사 2명, 명예집사 2명, 명예권사 17명으로 모두 23명이다.

□ 교회의 프로그램

노인들을 위한 우리 교회 프로그램은 노인의 수에 비해 아직도 태동기에 있다고 할 만큼 미약한 것이지만 그중 두드러진 것으로는 주일학교의 「노년부 운영」 당회장의 「노인 심방」과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부의 「경로회」 등을 꼽을 수 있다. 앞으로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이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1. 주일학교 노년부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든 노인들로 하여금 천국에 갈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우며 조상으로서 후손들에게 바른 복을 비시도록 하며 파란 많은 인생의 나그네 길에 접어든 외로움을 하늘의 소식으로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일학교 산하에 노년부가 신설된 것은 1973년 12월이었다. 70세 이상이나 된 분들을 주일 학교 학생으로 구분한 것은 그 나름대로 깊은 뜻이 있기도 하지만 한국의 그 어느 교회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학교를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는 데 선구자적인 어려움과 함께 문제점이 따르고 있는 것 같다.

작년까지는 다섯째 주일에만 모이던 것을 올해부터는 매주 2부 예배 후 11시 50분부터 노년부실에 모여 공과공부(장년부공과 사용)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5개 학급에는 노인들이 원하는 반 이름을 붙이고 교사를 두었으며 매주마다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자체 중

요행사로는 매월 끝 주일마다 생일축하를 하며 반별대항 찬송가경연대회, 성경퀴즈대회, 성경암송대회, 특별친목회등의 대회와 출석·전도·성경마독 등에 대한 시상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연간 예산은 23만여원이며 부장에는 김천준 장로가 지도교역자에는 김재창 목사가 충성하고 있다.

2. 노인심방

노인 심방은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특별한 뜻에 따라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가 실시해 오고 있다. 평일의 적당한 날에 당회장 목사의 내외와 여전도사들이 함께 동·서·남·북 4구를 제회하에 따라 순서적으로 심방을 한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교회에 나오는 교인이라도, 가정에 노인이 있으면 심방을 하고 있는 때 이는 심방과 아울러 전도도 목적 하고 있는 때문이라고 한다.

3. 경로회

청년면려회 봉사부가 주최하는 경로회는 1966년 5월 1일 「제1회 경로회」가 시발점이 되어 올해로 제10회를 맞게된다.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경로의 날」로 정하고 있어 올해는 5월 24일이 된다. 이제까지의 경로회 순서는 대부분 예배와 식사 및 주일학교 각 부 학생들이 마련한 위로의 순서들이었다.

□ 앞으로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그러하듯이 노인문제 또한 노인들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파생시키는 문제는 아니다. 노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의 상호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면 교인 누구나가 다 해결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돌아 볼 의무가 있음을 온 성도들에게 인식시키는 문제이다. 또한 이제 첫발을 디딘 노년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건강진단과 건강관리 등의 의학적인 지도의 배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해마다 실시 되는 「경로회」의 차원을 높여 눈과 귀에만 머무르는 일시적 위로가 아니라 마음에 연결되는 지속적인 위로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박영자 기자>

믿음을 유산(遺産)으로

<공 용 빈 · 71세>

동학군(東學軍)이었던 나의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느 미국선교사를 통해서라고 한다. 후에 아버지는 교회의 영수(領袖) 일까지 보시게 되고 "범사에 주님만 의지 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늘 말씀하여 주셨다. 어려서 부터 이같은 믿음의 교훈을 받고 자랐으며, 15세의 소년으로 3·1운동을 맞게 되었을 때는 뒤게 뒤질세라 매형의 뒤를 따라 분주히 뛰어나니며 하노라 하였지만 나의 믿음은 켜지 점점 약하여져 갔다. 그리하여 모두가 해방의 기쁨에 더명실 춤을 추며 기뻐하는데도 나는 아버지의 부탁대로 믿음을 충실히 지키지 못한 괴로움에 차마 교회문도 들어 설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 나를 공산지하에서 무사히 자유의 땅으로 옮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랜 병고 끝에 숨을 거두면서도 "나를 만나시려거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하며 가족과 이웃의 믿음을 염려하며 죽어간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나에게 확실한 신앙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셨다. 그후로 나의 모든 생활은 일변하여 더욱 확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되었고 옛날 아버지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남은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를 힘쓰게 되었다. 그 결과 요즘에 와서는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고 그럴 때면 다시금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터질 듯 뿌듯함을 느낀다.

지금의 나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부족한 것이 없다. 모두가 만족스럽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들 밑에서 차근차근 성경 말씀을 배우는 우리교회 젊은이들을 볼 때는 부럽기 그지없고 주일학교 교사 한번 못한 것이 항상 내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들의 기도소리는

<김 연 순 · 77세>

나의 기나 긴 신앙생활의 여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특히 젊은이들을 더 많이 만나본 것 같다. 그것은 아마도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젊은이들에게 기쁨을 줄어 온 편견 비슷한 나의 일종의 습성 때문인지도 모른다. 지금도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은 피난시절 부산에서의 병원생활이다. 그 때 전화에 시달리고 불행에 당한 젊은이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일일이 위로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려고 동분 서주하던 것을 생각하면 내가 그 무슨 힘으로 그랬는 가 실다.

황혼길에 접어든 지금 우리교회 젊은이 들을 보노라면 항상 마음이 든든하다. 특히 중·고등학교 어린 학생들의 기도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우리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멀리서 보면 푸르기만한 잔디도 가까이 가 보면 흙이 보이는 곳도 있듯이 그들에게 단점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은퇴 없는 신앙생활

<강 지 순 · 87세>

요사이 나는 오직 전도하는 기쁨에 살아간다. 올해 내 나이가 87살이지만 아직도 나는 눈과 귀가 밝고 이가 튼튼하다. 이러한 건강과 좋은 환경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비만 오지 않는 날이면 공원에나가 전도한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개 이유가 많기 때문에 주로 젊은이들을 찾아서 전도한다. 그러면 10명중 7~8명은 나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인다. 정신자를 몇명이라도 얻게 되는 날이면 나의 마음은 하늘을 날듯 가볍고 마음 속에서는 기쁨이 샘솟는다. 생각하면 나에게 건강 주신 것도 해도 고마운 일인 데 전도자의 기쁨을 여기에 더 하여 주사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 깊고도 놀랍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 가운데도 늘 나의 마음 한 구석을 찌르는 아픔이 있다. 그것은 온집안 식구가 교회에 충실히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일에 크게 책임을 느끼어 항상 눈물로 기도한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도 기도한다.

오직 나의 소원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 전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에 있어 은퇴를 모르는 신자가 되는 것이다.

야학(夜學)을 열던 시절

<백 차 순 · 81세>

내가 어머니의 손에 이끌리어 교회에 나가서 시작한 것은 7살 때부터였다. 이렇게 어려서 부터 어머니를 통해 귀한 신앙을 이어받은 나는 대우 신명(信明)여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기도하였다고 생각된다. 밤 10시가 되면 등불을 끄고 자야 하는 기숙사의 규칙을 어기고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 두 친구와 함께 백일동안 계속하여 기도를 드린 것도 그 때이었다.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던 그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되며, 그러기에 졸업 후의 우리들의 소망은 산촌을 두루 찾아다니며 전도와 계몽운동이 최대 목표였었고, 정말 졸업후에는 뜻대로, 아낌없이 젊음을 바쳐 말씀전하는 일과 야학(夜學)을 열어 문명되게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였다.

그후부터 나는 오늘에 이르기 까지 나라에 조금이라도 이로운 일이 생기면 그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버렸다.

이제는 나도 나이가 들어 마음으로는 앞서서 일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하루에 배번기도 하지만 특히 젊은이들을 위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살아야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젊은이가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일을 기도하고 믿기 때문이다.

유아와 가정교육

■ 대 답 ■ 교 사/조 선 근 집사(영아부 부감)
학 부 모/김 연 이 씨(최요셉 어머니)

조—올해 영아부가 새로 생기면서 어머니 교육의 일환으로 목요집회 이틀때던 목요일 어머니학교를 연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꽤 의의있다고 여기는데, 어떻게입니까?

김—물론이죠. 어머니의 한 사람으로서 기쁨과 감사를 금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도 열심내시고... 목요집회를 통해 배우는 바가 너무나 많아요.

유아와 부모—같이 배우는 곳

조—감사합니다. 근래에 취학전 어린이들의 바른 지도와 교육이 더욱 강조되는 마당에, 영아부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육의 시발(始發)이란 점에서 일선 교사의 한 사람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김—생각하면 참 기특해요. 말을 겨우 배우기 시작한 아이가 기도를 배우고, 노래며 성경이야기를 조금씩 알아 가는 것을 보니까, 교회에 데려오는 즐거움 같은 것을 느껴요.

조—우리교회 유치부나 영아부는 유아들과 부모가 같이 배우는 곳입니다. 전에 「충원」지에도 소개되었지만 영아부 신선의 중요목적이 그들의 영적 성장과 지능개발·정서교육·인격형성·신체발육 등에 있고

이들의 바른 지도를 위해 목요집회를 통한 어머니교육도 아울러 실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교육은 가정도 함께

김—그런데요, 예산판게이겠지마는 목요집회 때에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싶어요. 아이를 집에 두고 올 수 없는 어머니들의 공통된 의견인걸요.

조—그래 불려고 계속 연구중입니다. 기독교교육 하면 교회와 가정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기독교교육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적은 데에 놀랍니다.

김—부끄러운 일이죠. 무관심도 문제지만, 잔혹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의 방법조차 모르는게 아닐까요?

조—그런 점도 없지 않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가정을 통해 세상에 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느냐에 따라 사람됨이 결정된다고 하지요. 가정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김—저도 동참입니다.

조—기독교 가정에 있어선 자녀의 신앙은 곧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서, 부모의 신앙적 결단에 따라

●딸에게●

건강하게 훌륭히 자라기를

부꽃과 살구꽃 내음이 봄기운과 온 천지를 뒤덮고 있어 온 마음이 온화해지구나. 이럴 때면 엄마가 너에게 이 봄의 행복과 아울러 모녀의 정을 두텁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한층 더해진다. 엄마는 너희들이 건강한 몸으로 늘 쾌활하게 웃으며 뛰노는 모습을 볼 때 마다 흐뭇한 마음이 가슴 가득히 차 온단다. 또 밤늦도록 졸린 눈을 비비며 공부하는 모양을 볼새라면 더욱 대견스러워진다.

허나 엄마는 늘 너희 자매가 의종고 사이 좋게 지내며 사랑으로 위해 주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 늘 작은 일에 충성 하며 건강한 몸으로 자라서 나중에 다 성장해서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라며 너희들의 신앙도 날로날로 성장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 대 순〉

〈본교회 집사〉

●어머니에게●

엄마의 기도속에 성장하며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저는 아침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태만해질 수도, 불평할 수도 없이 실망시키는 말이 되지 않기 위하여 다시 자신을 고치곤 합니다. 저는 엄마의 기도가 무엇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밥을 많이 먹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공부하라는 그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등교길을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자식이 다 큰 어른이 되어도 어버이는 자식이 어리고 귀엽게만 여겨진다고들 하지만, 엄마는 우리가 좀더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게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코를리개 장난 꾸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하루 아주 다르게 우리는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의 일을 혼자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더욱 엄마가 좋습니다.



〈고등부 2년〉

〈정 매 리〉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아 자신이 아니고 부모의 결단에 의해서 맡깁니다.

김—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어린이, 가정 환경이 나쁜 어린이일수록 탈선하고 비뚤어지는 경향이 많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나 어른들이 말이나 행동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유아교육은 어머니교육부터

조—방금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나왔는데 그것을 잘하자면 어머니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그것은, 어머니들이 자녀들과 가정에서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6, 7세 이전의 어린이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니까요.

조—그런데 그 어머니가 되기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어머니야말로 가장 어려운 교사적이라고 하는데,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이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소유하려는 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김—좋은 어머니가 되려면, 공부하는 어머니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이군요. 세대가 세대이고 보면 어머니도 못하기도 꽤 힘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교육인지 어리둥절할 때가 적잖으니 말예요.

조—흔히 어머니의 사람이 곧 좋은 교육이라고 합니다. 어느 책을 보니, 지금까지 부모들에게 “자녀를 사랑하십시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많았지만 “어떻게 사랑하십시오”를 가르친 이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김—어머니들이 사랑을 잘 관리할 줄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조—물론이지요.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주느냐, 그 자체야말로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김—그럼, 어머니 교육은 어떻게 할까요?

조—스스로 하는 길밖에 없지요. 우리교회에서 하는 목요집회도 어머니 교육을 하자는 게 아닙니까?

김—어머니들이 몸소 배워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쩌다 보면 한 주일에 한번뿐인 목요집회에 못 나오는 때가 있어요. 한 마디로 열의가 부족한 때문이겠지요.

조—자녀란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탁 받은 것이므로, 훌륭히 자라도록 도우려면, 먼저 어머니들이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하겠어요. 어머니 자신이 성장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이 미치게 해야겠어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그런 큰 꿈이 꼭 필요하니까요.

김—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 꿈을 키우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는 어머니들이 꼭 되어야겠군요.

조—예,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

●딸에게●

기쁨으로 순결하게 헌신하는 내 딸이기를

이 복 희



숙아! 너의 사랑어린 정성을 눈에 보는 듯 그 동안 보내준 편지가 제법 쌓여 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정리해 봤단다. 갓 대학에 입학한 너를 시골에 두고 내려올 때마다 너의 눈 시골에 눈물을 보고 비스가 떠난 후에야 울음섞인 큰 숨을 삼키며 눈물을 흘리기도 벌써 3년째. 이제 너도 제법 의젓해졌지.

너의 걱정은 내가 맡고 싶고 약해질 때면 건강을 주고 싶고 온갖 좋은 것들을 가지게 하고 싶은 마음 부족한 모정도 이렇거든 하물며 예수님의 사랑이겠니! 영육간에 온전한 아버지가 되시며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너를 접붙여야 할 어머니의 사랑 곧 기도의 밑거름이 줄어질까 요즈음도 일편 단심 기도에 전념하련단다.

숙아! 너를 생각만 해도 기뻐지고 자랑스러워짐은 이 엄마의 작은 소원—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님께 순결하게 헌신 하는 것—의 그 싹뿐 아니라 그 풍성한 열매까지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란단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기도의 눈물이 너로 하여금 그 무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또한 해를 늙는 이 엄마에게 그보다 더 큰 보람과 위로는 없을것 같구나

(대구·서현교회 집사)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하나님 곧 내 하나님

김 희 숙



어쩌면 반평생이 될지도 모르는 스무 고개의 마루턱을 훨씬 넘어선 이즈음에야 비로소 여자가 저야 하는 「어머니」라는 명패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것을 아주 막연히나마 깨닫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저의 미련함과 문란의 소치인 것 같습니다. 비록 짧은 생이었지만 나날 속에서 부딪히는 저극히 작은 문제에도 그저 넘어지기 잘하는 무지의 연약함 속에서 바라보는 어머니의 체념의 철학. 그것을 오로지 「믿음」으로만 인정해 버리기에는 너무도 비열해 보였고 또한 젊은 저에게는 도무지 이해되기 힘든 것이었기에 공연히 치밀어 오르는 「여자됨」의 분노가 한때는 반항이란 감정으로 표현되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어머니!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생을 잔잔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끊임 없이 사랑하면서 부끄럼 없이 다 살아 드린 마지막 어느 날의 고백—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로 1:16)—이 어머니의 생명과 맞바꾼 숨은 사람의 헌신으로 인하여 조금도 부끄럼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어머니! 푸르른 오월의 이 한 날에 이 딸의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피워낸 향기로운 백합화 한 송이를 가슴에서 가슴으로 조용히 건네어 바쳐 드립니다.

(대학부 3년)

아름답도다 이 믿음

아직 보지 못하였어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것처럼 확신속에 살아간 사람이 있다. 믿음의 눈을 통해 잡다하게 드리운 인간의 장막 너머 환한 새 하늘, 새 땅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며 의지하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리고, 고독과 고난의 길이 엄습해 와도 감사의 기도 와 찬송으로 예수의 향기를 발하여 살아간 사람이 있다. 날마다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더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 이루어 드리는 것만을 오직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삶을 산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 박영순 전도사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삼고자 한다. ※ 박전도사님은 은퇴 후에 우리교회 권사로 수고하셨다.

□ 시련의 순간에 주님 위하여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

1902년 4월 13일 평북 칠산군 갑봉리에서 태어나 1975년 4월 25일, 서울 중구 인현동에서 별세하신 때까지 박전도사님을 인간적인 면에서 볼때 남달리 건지기 어려운 풍파속의 외로운 일생이었지만 그가 남긴 발자국마다 예수님의 흔적을 역력히 볼 수 있다.

박계순씨의 6남매 중 2녀로 태어나 부친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성장하여 17세에 김영설씨와 결혼하였으나 박봉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의 어려움은 좀 나은 편이었고 첫번째 건지기 어려운 시련이 닥친 것이다. 1남 2녀의 자녀를 남기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너무도 갑작스런 어려움에 앞이 다 캄캄하였다.

그러나 마음을 더욱 굳게 먹고 자녀를 위해 열심히 일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절망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이런 시련의 순간에 일생을 주님 위해 몸바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곧 평북 선천여자성경학교에 입학하였는데 그 때 아들의 나이 4살이었다. 갓은 고초를 겪고 성경학교를 마친 후에 신의주 제3교회에서 봉사하게 되었는데 이 때부터 박전도사님의 본격적인 전도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8·15 해방을 맞아 이제는 교회를 위해 망봉고 봉사할 수 있다고 기뻐한 것도 잠시뿐, 공산치하의 신앙생활은 어려워만났다. 그래서 1945년 겨울 월남하여 연희전문학교 신학과에 재학 중이던 아들 지원

군을 돕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1946년 봄 월남하였다. 그러나 6·25 라는 민족의 수난과 함께 두번째 건지기 어려운 시련이 도사라고 있을 줄이야...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 보냈다는 일념으로 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아들이 공산당에게 납치 당한 것이다. 또다시 뜻하지 않게 아들을 잃은 박전도사님은 어머



◇생전의 모습

니로서의 끌어오르는 서러움과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다.

그러나 꿋꿋이는 모든 감정을 누르고 조용히 주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다. 이때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간 뜨거운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주님께 대답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달았나이다.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만 바라보며 헌신하겠습니다.”

□ 성수주일과 십일조는 철저히 아들에게 못다한 꿈 끝내는 딸에게

박전도사님은 주일·십일 예배와 새벽기도회는 물론 어느 집회든 꼭 참석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었다.

또한 단돈 백원이 생겨도 십일조를 떼어 놓고, 이복에 있는 아들과 큰 딸을 교회에 가입시켜 그들의 이름으로 매월 회비를 내시었다. 이같이 생활이 어려워도 헌금에는 늘 여유가 있었다.

수 많은 연약한 교회를 도왔고 특히 교역자들을 절대로 괴롭히지 말고 순종하라고 늘 말씀하셨다. 또 외아들을 목사로 키우려던 꿈으로 끝내는 둘째딸(김정옥 전도사 현재 영동제일교회)을 신학교에 보내시었다.

□ 죽음까지 그리스도인의 모범 보여

기도생활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의 본이 되었던 박전도사님은 평소 자식과 이웃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오래 앉지 않고 가계해 달라고 기도하시더니 누우신지 10시간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언제쯤 돌아 가실는지 시간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 같다. 생전에 부탁 받으신 대로 김창민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알아본 결과 자신의 장례비와 교회에 헌금을 하기 위하여 90여만원을 저축하여 돌아가신 후에 단 한 사람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고 도리어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시었다.

※ 서울 새문안 교회를 비롯하여 남한에서만 10개 교회에서 시무하셨다.

복음선교의 성경적 의의

홍 중 만 목사

선교(mission)라는 말은 라틴어 미토(Mitto)에서 온 말인데 “내가 보낸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선교사라 함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사도라는 말과 선교라는 말과는 의미가 상통한다. 사도는 희랍어로 아포스톨로 즉 “내가 보낸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선교사들의 행전이라고 라버트 목사는 말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도 위대한 선교사라고 할 수 있다. 요 20:21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셨다. 따라서 선교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하나님의 뜻의 전파자요, 선교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한계는 땅끝까지이다.

1. 복음전파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위하여, 인간들을 위하여, 세대를 위하여 계획을 가지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신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해에 집중하고 있다. 그들이 부활 전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한 점이 많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나? 유다는 배반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나머지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매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 이해의 열쇠는 예수님께서 죽어야 할 필연성을 깨닫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여 악한 것만 생각하게 되었다. 전 세계는 부패하여 흉수를 말살해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여 세우셨다. 그러나 노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그의 후손도 바벨탑을 쌓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분산시켰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전개시킨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피에 묻은 옛 고장을 떠나 새 고장에 가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은 그의 외모나 도덕적인 성질을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었다(롬 4:13; 갈 3:6).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와서, 즉 예수님이 나와서 세상이 축복을 받으리라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실현하시는 수단으로 유대민족을 보존하시어 여호와 하나님의 신관을 보유하게 하였고, 그를 통하여 거듭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마침내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예수님을 주셨다.

그러나 세상은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몰랐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야로 알았고, 유대 이외의 이방인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열려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이 오묘한 뜻을 모르고 있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우주창조의 최초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2. 세계복음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 명령이다

예수님께서 도성인신하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생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구원사역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 나가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고 하셨다.

3. 세계의 복음화는 성령이 오신 목적이다

성령이 하시는 여러가지 사역이 있으나 그의 주요목적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여 구속사역을 이루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이 가장 뚜렷하게 역사되어진 기사는 사도행전이다. 거기에서 성령께서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옥문을 열고, 방언을 했고 갖가지 이적을 행하셨다.

결국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아시아로, 마케도니아로, 고린도로 계속 퍼졌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시고 사역하신 목적은 선교이었다.

4. 복음전파는 세상 인간들이 절규하는 요구이다

현대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갈등, 부조리, 불신, 불안은 우리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무엇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무엇의 개선으로도 안된다는 것을 역사는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한다. 그 이유는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즉 죄 문제이다. 그러므로 해결의 길은 복음밖에 없다.

현대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되어진 상황이다(롬 10:10-15 참조). <본교회부목사·선교사후보>

내 버릇

책 남 입
<남 2학년>

나는 우리 선생님한테 잘못된 것이 많다. 교회에 와서 떠들고, 말생을 피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구장이라고 별명까지 붙었다.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몰랐다. 개구장이라고 안해서 몰랐다. 알고서부터 나는 깨달고 장난을 안했다.

나는 교회에 한번도 결석을 안했다. 나는 예수님, 하나님께 매일 나오는 것이 기쁘다.

나는 내 버릇을 고치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의 장난 버릇을 고쳐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했다. 그러자 매일 내 버릇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기도하면 안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

제자들이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 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뱃들을 그 묵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1-6〕

~~~~~

<총 현 만 평>



* 가정의 달 *

외출기는 매한가지

□ 컬 럽 □

주역(主役)과 단역(端役)

정 은 표

오래도록 자기에게는 단역(端役) 밖에 맡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이생의 무대에서 퇴장해 버렸다는 어느 한 여자 탤런트의 기사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하였다.

만년 단역이라는 이유가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전지기 어려웠으면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도 자기의 것이 아닌 주어진 생(生)을 포기하여야만 하였을까? 만약 단역이 아닌 주역(主役)을 맡게 되었다면 정말 소망대로 멋진 연기를 보여줄 수 있었을까?

글쎄, 그것은 무엇이라고 쉽게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연극의 전체 진행보다는 어느 특정한 배역만이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한 좋은 연기를 기대하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그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빠지기 쉬운 편견인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편견에 빠지도록 이끄는 것은 그저 막연히 꼬리보다는 머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열망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머리 중에서도 인기있는 머리가 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의 눈에 반짝이는 소위 인기있는 스타가 된다는 것은 곧 돈과 명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보다는 저음받은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과 진실을 표현해 보이려는 이름 없는 스타의 길이란 더욱 고달프기도 하려니와 돈이나 명성과는 거리가 멀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기있는 스타가 되기를 갈망한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도 자기 위치에 대한 편견 때문에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여 인기있는 배역을 찾아 헤매이거나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지나치게 자기에게 맡겨진 배역만을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의 일이야 어떻게 되어가든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 만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우리는 적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큰 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다고 배워왔다. 그러나 실제 우리들의 교회생활에서 보면 사람들의 눈에 번쩍 뜨이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적은 일로 취급한다. 그리고 가볍게 여긴다. 그런 것은 꼬리가 하는 일이고 그런 것은 주역이 할 노릇이 못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분수를 한번쯤 생각해 보면 부분적인 소홀로 전체를 약화시키는 그런 실수는 없으리라고 본다.

- 제 7 과/제 7 계명
□ 성 경/출 20:14
□ 찬 송/새 350 (합 368)

하나님은 성결한 영이시다.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은 물론 몸도 언제나 성결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육체의 순결을 보존하시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면 제 7 계명의 뜻은 무엇인가?

(I) 결혼의 법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전 7:2)고 했으며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히 13:4)고 했다. 일부일처주의는 창조의 원리(창 2:18-25)로 보나 사랑의 원리로 보아 기독교의 변할 수 없는 법칙이다. 따라서 결혼의 제일의 법은 일부일처제이며 이윽 여하를 막론하고 혼외(婚外)의 성관계는 범죄이다.

다음은 결혼에 있어서의 의무이다. 일반적의 부에 대해 엡 5:23에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함으로써 다스리는 의무를 가르쳐 주며 아내의 의무는 “남편에게 복종”(엡 5:22)하는 일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사랑과 존경의 관계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II) 다음은 제 7 계명에서 금지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 몸을 더럽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로마인들은 결혼식 때 불과 물을 남편에게 증정하는데, 이는 불처럼 모든 더러운 욕망을 태우고 물처럼 씻어낸다는 뜻이다. 이는 성도들에게도 같아야 한다. 그러면 몸을 더럽힌다는 것, 즉 음행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① 정신적인 면에서 : 이는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 하였느니라”(마 5:28)고 하신 대로 이성간에 갖는 성적욕망을 뜻한다.

② 육체적 면에서 : 이는 혼전 또는 혼외의 성 관계를 말한다. 이는 욕이 말한 대로 (욥 31:11) 중죄(重罪)이다. 이는 음행이란 하나님과 맺은 계약(결혼서약)을 위반하며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의 법을 앞세우는 망령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음행의 성격을 살펴 보겠다. ① 음행은 이웃을 도적질하는 행위다. ② 음행은 남을 타락시키는 행위다. ③ 음행은 몸의 안락을 다 더럽게 한다(고전 6:18). ④ 음행은 몸을 쇠잔케 만든다(잠 5:11). ⑤ 음행은 주머니에 풀린 구멍처럼 몸과 재산을 낭비케 한다(잠 6:26). ⑥ 음행은 영혼을 망하게 하며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한다(잠 6:23-33). ⑦ 음행은 마음을 빼앗는다(호 4:11).

그러면 어떻게 음행을 피할 수 있는가? ① 음녀(또는 음남)의 무리들을 멀리하라(잠 5:8). ② 음행의 죄는 눈을 통하여 들어 음으로(창 3:6) 눈을 조심하라(참고 욥 31:1). ③ 음행은 불의한 말에서 시작됨으로 입에 파수군을 세우라(시 141:3). ④ 마음을 지키라(잠 4:23). ⑤ 웃은 마음의 창문 이므로 단정치 못한 음모를 한 자를 경계하라(참고 잠 7:10). ⑥ 악한 무리에 휩쓸리지 말라(시 106:18). ⑦ 한가함 또는 게으름은 음행의 동기가 되므로(예, 절 16:49 삼하 11:4) 일에 열중하라. ⑧ 젊어서 취한 아내 즉 조감지처를 즐거워하라(잠 5:18). ⑨ 여호와의 경외하기 위

구역공과

◇ 6월 공과 ◇

하여 힘쓰라(잠 16:6). ⑩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찾으라(시 119:103).

- 제 8 과/제 8 계명
□ 성 경/출 20:15
□ 찬 송/새 362 (합 354)

제 7 계명과 같이 제 8 계명 “도적질하지 말라”의 근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다. 성도란 하나님께 속한 무리라는 뜻이므로 성도 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 “聖”에 위반되는 도적질을 해서는 안된다.

(I) 도적질의 원인

① 내적 원인 :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불신앙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은 도적질 하게 하는 근본동기가 된다. 그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또 돌보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사람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결코 가난이란 이유로 도적질 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는 탐욕이다(수 7:21). 탐욕이란 지나치게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을 말한다.

② 외적 원인 : 사탄의 유혹이다(예 : 가롯 유다 요 12:6; 13:27) 사탄은 도적질을 계획하는 주모자로서 그는 남시의 미끼를 갖고 하와에게, 가롯 유다에게 그리고 심지어 택한 백성에게 유혹의 손을 벌린다.

(II) 도적질의 종류 : 여러가지가 있다.

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적질이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것(말 3:8)이라든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고전 6:17-20)등이다. ② 이웃의 것을 훔치는 일이다 예를 들면 이웃의 영혼을 훔치는 이단자들, 또는 이웃의 돈과 물건을 훔치는 일들이다. ③ 자신에게서 훔치는 일이다. 이는 ㉔ 인색함(전 6:2) ㉕ 남용(예 : 탐자) ㉖ 게으름 등을 말한다.

(III) 그럼 어떻게 하면 도적질을 예방할 수 있는가?

①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살라. 사탄은 할인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고용하기 좋아하므로 제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할 때(엡 5:28) 도적질은 예방될 수 있다.

②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히 13:5) 도적질은 탐심의 자녀이므로 현재 가진 것으로 족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욕심은 태평양보다 보다 깊고 우주를 삼키고도 남을 만큼 넓음으로 그것을 채우려하지 말고 자족하는 비전을 배우라. 이것이 가장 좋은 비결이다.

◇ 이 구역공과는 매월 계속하여 실리게 됩니다.

장로투표 5월 25일 실시키로

▷ 10명 더 세우기로 한 치리장로 투표일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기도하여야

지난 2월 25일 당회는 당회 산하 각 기관사업의 수와 양에 비하여 절대 부족한 치리장로를 새로이 10명 더 세우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 투표일은 늦어도 1주일전에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야만 하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라 지난 5월 4일 교회는 오는 5월 25일을 투표일로 공고하였다.

현재 우리교회 장로의 수는 시무(치리)장로 24명, 공로장로 2명, 증경장로 6명이다. 그러나 우리교회의 세례교인이 모두 4천여명인데 비하면 앞으로 시무장로를 10명 더 세운다고 하여도 실제로는 대단히 부족한 수이다.

치리 장로직은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을 대표하여 지도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투표일에 임하기에 앞서 장로의 이같은 직무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도록 특별히 기도하며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치리장로에 대한 해설

율법시대부터 내려온 치리장로는 치리회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사무를 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딤후 5:17, 롬 12:7-8).

또한 만 30세 이상 된 남자 가운데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딤후 3:1-7에 해당하는 사람이라야 자격이 있다. 장로가 맡고 있는 직무의 내용으로는 ①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總察)하는 일 ② 도리오해(道理誤解)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는 일 ③ 교우를 심방하여 위로·교훈·간호하는 일 ④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 ⑤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하는 일 등이다.

선거는 당회가 개최할 날자와 장소를 1주일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며 그 작성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최하여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가(可)로 선정한다. 투표권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무흠 입교인은 누구나 있으며 투표 방법은 비밀투표로 하게 된다.

□ 통합기념행사 10월 9일로

당회는 성도간의 이해와 친목을 두터이하기 위하여 연 1회 정도 총회의 모든 성도가 한날 한자리에 모여서 실시하기로 한 통합 기념행사(가칭: 교회설립 22주년 기념잔치)를 오는 10월 9일(목)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장소는 시내 오산중고등학교 교정을 교섭중이라고 하며 당회는 이 기념행사를 위하여 위원장 한 명을 장로외에 5명의 장로와 1명의 목사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계획에 착수하였다고 하는데 곧 세부계획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

□ 개봉동 지역에 개척교회

교회 전도부에서는 시내 도봉구 창동 지역에 새로 교회를 개척하려던 계획을 바꾸어 시내 영등포구 개봉동 지역에 새로이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는 약 15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예산의 전액을 여전도회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하며 이종영 목사를 담임목사로 초빙하기로 하였다 한다.

앞으로 여전도회 제교회로서 주로 여전도회의 도움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데 첫 예배는 오는 18일 드리기로 하였다고 한다.

□ 성전건축 위한 기도회

지난 4월 19일(토) 오후 8시부터 성전건축을 위한 특별 철야기도회가 전측위원회의 요청으로 교회에서 있었다.

당회원은 물론 건축위원들과 그 외의 제직들과 성도들을 합하여 80여명이 참가한 이날의 철야기도회는 성전건축을 위한 특별헌금을 몇 시간 앞두고 실시되어 더욱 간절한 간구의 기도 소리가 기도실 가득히 울려 퍼졌다.

본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 초대합니다 ***

본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청년면려회는 70세 이상된 한약버찌 할머니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로회」를 열고자 합니다.

때/1975년 5월 24일(토) 12시
곳/충현교회 유년부실(본당1층)
진행/예배·식사·위로 순서

*** ** ** ** **

작은 음악의 회밤

중등부 성가대에서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작은 음악회의 밤」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읍니다. 어릴적의 추억을 격려하며 키워주시는 뜻에서 많이 참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때/1975년 5월 17일(토) 오후 6시 30분
- 곳/충현교회 본당(2층)
- 지휘/이효은 집사·반주/김 희영 선생

주일학교 중등부

□ 구명신 전도사 대학부 지도로

그간 신성종 강도사와 함께 대학부 부지도로 수고하시던 김길자 전도사의 후임으로 구명신 전도사가 임명되었다.

서울 숙명여자대학교를 졸업 후 네 자녀의 어머니로 대한신학교를 졸업한 구 전도사는 그간 우리교회의 집사로 여성 성가대 총무, 여전도회 회계, 「충현」지 편집위원 등의 중임들을 겸임하고 있었다.

앞으로 주로 대학부 여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지도를 담당하리라고 하는데 대학부의 발전을 위한 구 전도사의 활동이 기대된다.

□ 주일학교의 가정의 달 행사

지난 5월 4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주일학교 1부에서는 여러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하였다. 초등부 어린이회에서 마련한 「어린이 주일」이라고 쓴 예쁜 색리본을 아침 일찍부터 유·초등부 어린이들과 교사들의 가슴에 달아 주었다.

또한 영아부로부터 초등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린이들은 담임 교사들이 나눠주는 선물을 받고 싱글링글 어절출을 모으며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영아부와 유치부에서는 교사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예쁜 선물을 주머니에 선물을 넣어 주어 어린이들을 더욱 기쁘게 하여 주었다. 아울러 백성룡·김재창·김종택·정기성·홍종만

목사님이 어린이들을 위하여 축복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듯 맑고 쉼다운 눈을 깜빡이며 생긋생긋 웃기도 하였다.

또한 5월 11일 「부모님 주일」에는 카네이션 꽃을 부모님들 가슴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달아드린다. 1부 예배 때에는 대학부에서 Ⅱ부 예배 때에는 유·초등부에서 Ⅲ부 예배 때에는 중·고등부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오는 5월 18일 「스승의 주일」에는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에게 역시 학생들이 평소의 수고에 감사하는 뜻으로 꽃을 달아 드리기로 하였다고 한다.

□ 주일학교 교사 수양회

해마다 실시하여 온 주일학교 교사 수양회가 오는 6월 6일 열린다 고 한다. 장소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영농이라고 하는데 주일학교 11부교사 전체가 함께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기에 각교사는 모든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 모범어린이 표 창—유년부

어린이주일(5월 4일)을 맞아 유년부에서는 모범 어린이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매년 어린이 주일을 맞아 표창을 실시 하는 유년부는 금년에도 3학년의 박채성(여) 어린이를 모범 어린이로 선정했다.

토막소식

◇ 구역권찰회는 3월 부터 시작 한 춘계 대심방을 6월말까지 계속 할 예정.

◇ 남전도회는 지난 4월 13일 지교회인 낙원교회에서 오인규 전도사를 강사로 헌신예배를 드리고 이날 철야기도회도 가졌다고 한다.

◇ 여전도회는 안양 천지교회를 4월 6일 돌아보고 3만원 보조하기로 했고 통일촌교회 사택 건축을 위하여는 50만원을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 여전도회는 5월 13일(화) 태능 푸른동산에서 야외예배를 드릴 예정이라고 한다.

◇ 교육연구위원회는 오는 5월 13일(화) 오후 6시 30분 당회실에서 5월 월례회의를 갖는데 이날 조선근 집사의 「우리교회 인쇄물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다고 한다.

◇ 노년부는 5월 25일 성경퀴즈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소신지서를 범위로 하여 오전 11시 30분 부터 노년부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 대학부는 6월 대학부 잔치를 준비하여 학원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5월 중에 학원전도지를 발간한 예정이라고 한다.

◇ 고등부는 고등학생면허회 총회를 오늘(5월 11일) 연다고 한다.

◇ 중등부는 지난 4월 20일 4층 예배실에서 전도훈련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학생 15명과 교사 4명이 참석하였다.

◇ 중등부는 반별성가경연 대회를 5월 25일 본당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 초등부는 「맑은 양을 찾자」라는 표어아래 특별 심방을 실시중이다.

◇ 유치부는 지난 10일 종묘와 경기도 선정능에서 반별친목회를 가졌다.

◇ 영아부는 지난 4월 29일 종묘에서 반별친목회를 가졌는데 영아와 학부모 및 교사등 모두 125명이 참석하였다.

◇ 지난 5월 3일 열린 수드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제 4차 총회에서 우리교회 김종석 집사가 부회장(전회계)으로 피선되었고 이효은집사가 음영분과위원(유임)으로 임명되었다.

성도교제의 참 모습을 보여준 화원구역

부족한 제가 구역에 위해 늘 염려하던 중에 홀로 사시는 연세 높으신 박영순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하고 돌아가신 후의 일이 염려되어 제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예배 때 말을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것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며 곧 조그만 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4월에 시작하여 올 3월에 끝났는데 끝난지 채 한달도 못되어 박권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이 모은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목적하던 바대로 박권사님을 위해 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돕고자하는 우리들의 적은 마음이지만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화원구역 담당 권사 전성조)

기자석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많은 사람들은 잃었던, 아니 잃어 버리지 않을 수 없었던 부모님과 자식들, 스승과 제자들 이런 저런 여러가지 정을 경정이나 하듯이 표현하려 한다. 마치 이 날이 아니면 손 사이로 빠져나가는 열기나 물이라도 될듯이 두려워하며, 그러나 그것마저도 매년 되풀이하는 각종 연례 행사처럼 번역되어 지친 모습들이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각박한 사회로 주름잡혀진 마음을 잊고 주님을 대하듯한 밝은 심정으로 1년 내내 가정의 달이 되어야겠다. <재>

◇…잔인한 4월이 지나서일까 두 팔 가득히 가슴 깊숙이 희망이 솟아올랐다. 완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의 발동이 만물에 임하고 있다. 잠시 만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드릴 것 없는 나는 허락하신 시간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려 조심히 편지칠 한 모퉁이에 앉았다. 부족한 것 주님께서 더욱 더 사랑의 울무를 배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신임기자-해>

◇…주일날이 되면 총현의 구석구석은 성도들로 차고 넘친다. 한결같이 밝은 모습들이다. 밀려 가고 밀려 오는 무리 가운데서 초신자도 가슴 뿌듯한 감사함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다가 무심코 하나하

나 얼굴들을 쳐다보노라면 이내 흐린 마음이고 만다. “아는 얼굴”이 없기 때문이다.

총현교회가 “그들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교회”라는 공동 의식이 생기려면 먼저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픔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노력은 개인의 신앙성장과 직결되어야 할 것이다. <정>

◇…비 온 뒤의 상쾌함!

그래 깨끗하단다. 그처럼 우리도 언제나 깨끗하고 싶다.

때로는 절다는 이유로 자만하여 엉뚱한 데 열의를 내기도 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티없이 맑고 깨끗한 삶이 되고자 최선의 길이라 애써보아도 역시 일간은 연약한 것을……주여, 손 들고 주께 나아갈 뿐입니다. <구>

◇…옛날에는 어린 사람을 「어린 것」이라고 불렀지만 요즘은 「어린이」라고 부른다. 어린 사람도 인격적인 생명체로 어른과 1대 1로 비교될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어린이날」이 되어도 「어린이」가 「어린 것」대접밖에는 받지 못하는 것은 「어린이」대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어른들의 잘못인가, 아니면 무지인가? <복>

편집하고 나서

* 당연한 대답을 기대치 않으며 당연한 질문을, 던져 보았다.

가정은 역시 하나의 조그만 소천국이어야 한다. 그래서 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오늘날 아무리 번화하고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가정의 울리, 가정의 형태만큼은 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물며 성도의 가정이라!

* 밝고 따사로운 5월의 태양처럼 깨끗하고 신선한 글을 써 주신 네 모녀님께 감사를 드린다. 부디 모녀간의 그 소박한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 유아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영아부가 출범한 지 어언 4개월 쯤준한 목요일회와 영아교육을 통하여 영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영아교육은 바로 어머니교육이었다.

* 가정의 달을 맞으며 일선교사와 어머니의 대답을 들어 보았다. 큰 도움이 있기를 바란다. <형>

* 일반적으로 노년부를 생각할 때, 이제는 다 사그라진 불치병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특집을 위하여 70세이상 퇴신 노년부 학생(?)들을 만나보고는 나의 생각이 완전히 그릇된 것을 깨달게 되었다. 천국의 소망이 더 가까운 만큼 그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표>

알립니다

교회 문서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와 출판물 편집과 교정에 관한 실제적인 훈련을 위하여 「총현」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 2회 편집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일시/1975년 5월 15-1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 장소/「총현」편집실.
- 대상/「총현」편집위원·간사·기자
- 내용/강의: 교회와 문서활동

강의와 좌담: 총현교회의 문서활동의 실태와 문제점

강의: 편집자의 자질과 편집요령

강의와 실습: 원고의 작성과 교정

실습: 원고 쓰는 법·교정법·편집요령

- ◎ 특히 교역자 여러분과 각 기관의 편집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사령(辭令)

명, 「총현」지 기자

신재성이정숙한혜숙
이혜봉안영자

면, 「총현」지 기자

조선희

1975년 5월 1일부